

## Visits from my window sill friends

This is a story about friends the pandemic has brought to us. It has been over a year now since the coronavirus started and began to disrupt our lives. There is a gloomy prospect that the situation will not change much this year. We become dispirited just from listing the many things this pandemic has forbidden us to do. There is no hope when we think of the past. The change has already taken place. As always, all we have left is the future. We must bear in mind that the future should be planned, not predicted.

Over the past year, we have habitually set a new standard to classify friends from foes. We have to figure out if it is safe to be in our own home, office, or family member's homes. The standards for safety grow higher and higher as more people in the space brings risk to our health. From 99 people in one space to 10 people and finally down to 4 people... A new psychological task arises while creating a physical boundary between me and the world for the sake of mine and my party's safety. Even though we are confined to a limited space, we need to struggle to

create a window connected to the outside world.

The new media environment has given us much more freedom than expected. Plus human imagination proves to be more powerful than healing. The artis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have gotten closer to nature, travelled with historical figures, sung songs of hopeful tomorrow with musical heroine, held hands in media networks, and sent their beloved cat to the space. Just like Anne of Green Gables, a redheaded girl who lives in the attic of a remote country house, we rest our chins in our hands and sit by our windows, carefully looking around. In spite of the predicament we are in, the world is still open to inspiring possibilities.

Suejin Shin, Ph. D.  
Creative Director

소제동 아트벨트  
Artbelt Soje

## 내 창가에 찾아 온 친구

Visits from my window sill friends

기간  
2021.4.14 - 7.25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신수진

참여작가  
김미진, 김진희, 백두리, 우국원,  
이경미, 이윤희, 윌리엄 코빙

관람시간  
수-금 13:00-18:00  
토 11:00-19:00  
일 11:00-18:00  
월·화 휴무

문의  
소제동 아트벨트 사무국  
070-8633-8180  
hand@cncitymaum.org  
www.cncitymaum.org

입장료  
성인(만 19세 이상)  
3,0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대전시 동구 거주자  
1,000원  
만 65세 이상  
1,000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1,000원

초등학생 및 미취학(3-7세) 아동  
무료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000원

소제동 아트벨트 크루 매장 이용시  
(영수증 지참, 현장 발권 한함)  
1,000원

## 내 창가에 찾아 온 친구

Visits from  
my window sill  
friends



주최  
CNCITY  
마음에너지재단

주관  
CNCITY  
마음에너지재단 관사마을

후원  
CNCITY  
에너지

2021.4.14-7.25

관사16호 / 마당집 / 팔남매집 / 핑크집 / 양갱갱

Gwansa #16 / Madang House / Palnammae House /  
Pink House / Yang Gaeng Gaeng Gaeng

# 내 창가에 찾아 온 친구

이것은 팬데믹이 나에게 찾아준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흔들기 시작한지 벌써 일 년이 훌쩍 넘었다. 오늘도 올해 안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이어진다. 팬데믹이 금지한 많은 일들을 열거하다 보면 우울증이 밀려올 것 같다. 되돌아가야 할 과거를 생각하면 희망이 없다.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래뿐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해야 하는 것임을 또 한번 마음에 새긴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습관적으로 피아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왔다. 나의 집, 나의 사무실, 나의 가족의 집 중 어디까지가 안전한 곳인지 가려야 했다. 공간에 사람이 더해지면 기준은 점점 더 정교해진다. 99인, 10인, 4인...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안위를 위해서 나와 타인 사이에 물리적인 경계를 만들어 내느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심리적 과제가 생겨났다. 비록 제한된 공간에 머물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으려면 세상과 연결된 창을 열심히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은 우리에게 기대보다 훨씬 큰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은 치유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역사 속 인물과 긴 여행을 하고, 뮤지컬 주인공과 내일을 노래하고, 미디어 네트워크 안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고양이를 우주에 보낼 수 있었다. 외딴 시골집 다락방에 살게 된 ‘빨간 머리 앤’처럼, 턱을 괴고 나만의 창가에 앉아 찬찬히 내다 본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가슴 뛰는 일들로 한껏 열려 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신수진



- ① 관사16호 대전광역시 동구 수향길 19 (소제동 299-70)
- ② 마당집 대전광역시 동구 수향1길 4 (소제동 299-67)
- ③ 팔남매집 대전광역시 동구 술량5길 4 (삼성동 100-12)
- ④ 핑크집 대전광역시 동구 술량5길 16 (삼성동 100-14)
- ⑤ 양갱갱 대전광역시 동구 수향1길 12 (소제동 299-126)

## ① 우국원 Kukwon Woo There Will Be Sun

회화 Painting  
관사 16호 Gwansa #16  
#cncitymaum #kukwonwoo

우리는 상상 속에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은 존재를 제한하는 장벽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다. 뮤지컬 <애니(Annie)>의 주제곡 <투모로우(Tomorrow)>는 “모든 걸 걸고라도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내일 태양이 뜰 거라는 사실”이라고 노래한다. 내일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오늘은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 ① 윌리엄 코빙 William Cobbing Will.ja.sam / Will.je.suis / Will.dwi.yn

영상 4K Single-channel Video  
관사 16호 Gwansa #16  
#cncitymaum #williamcobbing

윌리엄 코빙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 그대로의 점토같은 재료들을 작업 전반에서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그는 초현실적인 퍼포먼스를 만든다. 주인공은 거의 강박적이고 이상하리만치 반복적으로 형태가 없는 표면을 다듬는다. 작가는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감각적으로 표면을 느끼고 촉각을 통한 여러 가능성들을 제시한다.

## ② 김미진 Mijin Kim 시절인연時節因緣 – 내 사랑 꽃순이 NIDANA in the passage of time – Kossouni my dearly beloved

도자, 설치 Ceramics, Installation  
마당집 Madang House  
#cncitymaum #mijinkim

나고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거늘, 풍순이와 꽃순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연약한 생명들의 귀한 삶의 연장을 위해 매일 기도를 드린다. 곤충은 항상 나에겐 아름답고 경이로운 관찰의 대상이었지만 ‘꽃무지’와 동거를 한 후부터는 사랑과 순수를 배우는 고귀한 시간이다. ‘살아있다’는 것 만으로도 고마운 존재들을 위해 생명 존중 사상을 작품에 담는다.

## ⑤ 백두리 Duri Baek 잎보다 많은 빛 Monstera series

회화, 설치 Painting, Installation  
양갱갱 Yang Gaeng Gaeng  
#cncitymaum #baekduri

백두리는 글과 그림을 통해서 감초와 드러냄, 타인과 개인의 교점, 선택적 은폐와 의도된 노출 같이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만들어낸 긴장과 갈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표현해 왔다. 특히 작가는 어둠을 품고 빛을 쫓는 이들을 표현하며 소재로 식물과 빛을 다뤘다. 이번 전시에는 빛으로 지은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휘조원(輝造園)과 <잎보다 많은 빛> 시리즈를 선보인다.

## ③ 김진희 Jinhee Kim 당신과 내가 손을 잡을 때 The way we hold hands

사진 설치 Photo Installation  
팔남매집 Palnammae House  
#cncitymaum #wwhhproject

김진희는 사진을 주 매체로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속의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다. 재현이라는 사진 매체의 고유 속성을 전복시키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작업하고 있다. <당신과 내가 손을 잡을 때> 시리즈는 팬데믹을 경험한 개인이 사회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관계를 맺는지 드러낸다.

## ③ 이윤희 Yunhee Lee 14세기 소녀 14th Century Girl

도자, 설치 ceramics, Installation  
팔남매집 Palnammae House  
#cncitymaum #yunheelee

이윤희는 백자에 금칠을 더해 화려하고 정교한 형태를 완성한다. 이러한 조형성에는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경외감이 짙게 배어있다. 작가는 생과 죽음 등 삶의 총체적인 단면들을 종교와 신화의 이야기로 차용하며 제시하는 데, 여기에는 자전적인 형상의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욕망과 불안으로부터 시작한 여정은 깨달음을 통한 자아 치유를 거쳐 영혼의 안식을 찾는다.

## ④ 이경미 Kyoungmi Lee 핵을 향해 다이브 The Planet\_ Dive into the Core

회화, 조각, 설치 Painting, Object, Installation  
핑크집 Pink House  
#cncitymaum #leekyoungmi1

작품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죽음을 치렀던 작가의 연대기를 돌아본다. 사라짐 혹은 상실을 일찍 배워버린 작가는 무의식의 풍경으로 유년시절을 기억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삶이 남겨준 재료들을 재배치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여기를 돌아보게 만든다.